



T direct shop

갤럭시 S26 x 다이렉트 플랜
통신비 최대 30% 할인+무약정
백대폰오래가게

30

SK Telecom

26년 차보험 만기 앞둔 50~60대 주목!
자사 오프라인대비 평균 19% 저렴!
(보험시작일 25.5.6~)

19% 저렴

DB다액티브 자동차보험

동방신기 세 멤버 "새로운 활동을 준비중"...독자노선 행보 밝혀

더팩트 | 2009.11.10 11:06
최종수정 | 2009.11.10 12:00



시뮬레이션 요약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대립중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본격적인 독자활동에 나설 뜻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AD Google 광고

의견 보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지난 2일 SM엔터테인먼트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 멤버에 대해 "내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12일까지 팀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세 멤버의 법률 대리인측으로부터 이같은 계획이 전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측은 SM이 전달한 '데드라인'인 12일에 앞서 10일 '세 멤버의 근황을 알려달라'는 스포츠서울의 물음에 "세 멤버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이 세 멤버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독자활동을 인정할 만큼 SM측의 팀합류 여부 대한 답변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포석이다.

연예 랭킹

- 1 태연 친오빠 공개 "잘생겨서 유명해" 김지 고백 (놀토)
뉴스엔
- 2 서동주 "두 줄 뺐지만 아기집 안 보여" 오일 더 지켜본다
MK스포츠
- 3 22기 영숙, 글래머 몸매로 '푸른 산호초' 카 +섹시美 폭발
스포츠조선

연예 랭킹 더보기 1/10

TV 인기 영상

- [나 혼자 산다 639회 예고] 7 이토 준지 & 루틴러 배나 혼자 산다
- 만화를 찢고 나온 비주얼? 0 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 자기님의 영혼의 단짠, 의대 빵 터진 같은 그림체, 회색 흑신상출시 펜스타랑

포토 뉴스



라면에는 역시 김치, 달걀 필수 "어, 혈당이"...가장

AD **Google** 광고

의견 보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효린, '담도 폐쇄증' 수술 후터 고민... '상대 선수 문신으로 콤플렉스 극복' AFC 왜 방...

🔄 포토 뉴스 더보기 1/3



운동하지마세 요 미국에서 ... 뱃살 계속 나오 면 '이방법' 적.. 마운x로 끊고 두쭈꾸 입터..

공감많은 뉴스

연예 | 공감별

- 22기 영숙, 글래머 몸매로 '푸른 산호초' 커버...청... 266
- 제니, 알고 보니 6년 열애...깜짝 결혼 "행복하..." 208
- 방탄소년단 정국 韓 팬클럽, 광화문 일대 '정국 ...' 196
- '19세에 임신' 싱글맘 노슬비 "튼살은 너를 낳은..." 136
- 결혼 발표도 전에 혼전임신 고백...유명 아이돌 ... 132

오늘의 인기 검색어 **coupang**

1 도로롱	-	2 선물세트	-
3 가구	-	4 커피	-
5 가방	↑	6 캐시워크	↑
7 신발	↑	8 스킨케어	-

댓글 많은 뉴스

- '이럴 수가' 도미니카에 0-10 7회 콜드 게... 韓 야구 WBC 4강 도전 실패 [WBC]
- 복도서 담배 '뽕뽕', 교사에 욕설..."두려움 교생들 자퇴도"[영상]

'최후통첩'으로 보이는 팀 합류여부에 대한 SM측의 요구에는 '무시'전략으로 대응했다.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측은 "현재로서는 SM의 기자회견에 일일이 대응할 계획이 전혀 없다. 특히 SM이 8월 5일자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을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처분 결정에 따른 취지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과 명령을 존중해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세 멤버들이 SM을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해도 좋다는 결정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SM의 동의를 새로 얻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본안소송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SM에 대한 형사소송을 매우 신중히 고려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상호기자 sangho94@

<관련기사>

- ▶기습키스 차예련 '서로 잘 몰라서 다행(?)'
- ▶MBC '선덕여왕' 고현정 퇴장 앞두고 자체 최고 시청률
- ▶'꽃남' 김범 "'비상' 통해 남자로 태어나다"
- ▶[뉴스IN뉴스] '재범 복귀 계획' 박진영 '무릎팍'서 입연다 외
- ▶[새영화] 오는 11일 개봉 '청담보살'

모바일로 보는 스포츠서울뉴스(무료) 휴대폰열고 22365+NATE/magic@/ezi 접속

- 대한민국 스포츠 연예 뉴스의 중심 스포츠서울닷컴
Copyrights © 스포츠서울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고예요
0



훈훈해요
0



여이없어요
0



속상해요
0



화나요
0

↑ 올려 60

↓ 내려 66